

부록 2. 초청 연사 및 좌장 프로필

아누 드 메어

아누 드 메어는 INSEAD에서 기술경영분야의 교수 전략경영의 Akzo Nobel Fellow 이다. INSEAD 고위간부 교육과 MBA 프로그램의 학장을 지냈으며, INSEAD 유라시아 센터 디렉터 제네럴을 아시아 캠퍼스의 학장으로 임무를 다했다. 현재는 INSEAD 의 부학장이다.

아누 드 메어는 전자기술분야 공학자이고, 벨기에 쾨트주립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미국 캠브리지에 위치한 MIT의 AP Sloan 경영학 부의 방문학자로서 연구를 하였다. 독일의 키엘 대학, 일본의 게이오경영학과, 그리고 와세다 대학의 방문교수로 있기도 하였다. 그는 벨기에의 쾨트 대학에서도 가르쳤다.

아누 드 메어 교수의 주 연구관심 분야는 기술전략과 제조, 새로운 제조기술의 이행 그리고 연구개발관리에 있고, 그는 연구 초기에는 어떻게 혁신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가에 대한 이해에 대한 연구에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지난 20여년에 걸쳐서 주제에 대해 넓게 저술활동을 하였다. 1992년 고객이익창조에 대한 저서 등의 책을 썼다. 또한, 기술혁신의 경영관리에 대한 비디오와 인터넷 교육코스를 제작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전자정부에 대한 저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그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컨설턴트로서 활동하였고, 새로운 비즈니스 벤처의 생성단계에서 기업가들을 도와왔다.

그는 싱가포르에 있는 경제 Review 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다.

에드워드 스완스트롬

에드워드 스완스트롬은 현재 지식과학기술연구소의 소장이며, 세계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ANSI 의 사무총장이다. 또, eKnowledgeCenter의 사장이기도 하다. 그는 지식경영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선도하였다. 그는 경제학에 기반을 둔 지식경영, 지식경영경제학의 창시자이며, 지식경제학 분야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스완스트롬은 1975년이래로 지식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정을 실행하고 디자인하면서 지식시스템을 분석해오고 있다.

2001년 스완스트롬은 전세계 기업과 국가간의 지식경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식과 지식관리경제학에 대한 기준을 형성하는 세계적 규모의 기구로서 비영리단체인 세계지식경제위원회(GKEC)를 구성하였다. GKEC의 사무총장으로서 그는 미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에서 정부부처에 지식경영경제학과 지식에 대해서 트레이닝하고 컨설팅하는 일을 맡고 있다.

최근 10년간 스완스트롬은 닐슨미디어연구소, 미국 센서스 사무소, 미국 연방항공국, Raytheon, Caterpillar, 미국 국가안보청, 미국 체신청, 보잉사, 미국 해군, 남아프리카 통신부, Cable and Wireless, MCI, 마이크로소프트, Gilbarco 뉴질랜드 정부등에 지식정부와 지식경영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셉 E. 스티글리츠

스티글리츠 박사는 콜롬비아대학 국제공공대학원 경제학부와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

2000년에는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었으며,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세계은행 개발경제부문 부총재를 역임했다. 1993년부터 97년까지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과 위원회 회장,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 행정수반을 역임하기도 했다.

스티글리츠 박사는 1964년 Amherst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티글리츠 박사는 '정보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시해 역선택(adverse selection) 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핵심개념을 만들어내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는 기술변화경제와 생산성증가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는 요소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스티글리츠 박사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또한 1979년에는 경제학에 지대한 공헌을 한 40세이하의 경제학자에게 수여되는 미국경제학회의 John Bates Clark상을 받기도 했다.

경제자문위원회 임기 동안, 스티글리츠 박사는 클린턴 행정부 경제팀의 핵심 멤버로서 미시, 거시, 국제경제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그는 또한 연

금제단순화와 항공관제시스템민영화 등과 같은 정부개혁프로그램의 리더로 활동했다.

스티글리츠 박사는 환경, 공공의료와 같은 부문의 '시장 실패'(죽쇄 풀린 시장이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아 비용효율적인 정부정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론)를 주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세계은행에서 스티글리츠 박사는 개발전략을 재평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거의 20년동안 정책결정을 지배해온 워싱턴 컨센서스(자유무역과 자유금융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아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며, 모든 기업을 민영화하자는 주장. 현재 신경제론의 동력이 되고 있음.)를 국가의 역할과 지식의 강조, 성장과 평등의 상호관계, 경쟁과 정부의 불완전성에 주목하는 보다 균형잡힌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앤드루 엘렉

앤드루 엘렉 박사는 국제협력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경제 컨설턴트 에이전시인 벨렌데나 파트너스의 이사이며 호주 태즈매니아주에서 작은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국립대학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학 및 경영학부, 그리고 태즈매니아대학 경제학부의 부연구원이다. 그는 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지역의 경제개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다.

엘렉 박사는 1975년 파푸아뉴기니가 독립했을 때부터 4년간 파푸아뉴기니 정부의 선임경제임원이기도 했다. 그 후에는 파키스탄 담당으로 세계은행에서 근무했었고 방글라데시 선임경제학자로도 임무를 다했다.

엘렉 박사는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호주정부 경제계획자문위원회의 Chief Economist 였다. 1987년부터 1990년에는 외교통상부 경제 및 무역개발과를 이끌었다. 1995년부터 현재, APEC 의 capacity-building 을 촉진하기 위해 호주 개발협력재단에 의해 소집된 국제연구팀을 지휘하고 있다.

정국환

행정자치부 정보화계획관 국장

서울대학교와 일리노이주립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워싱턴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출신인 정국환 국장은 한국전산원 및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소에서 오랜 기간 일했으며, 전자정부관련분야에서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데이비드 벨링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데이비드 박사는 제일 시카고은행 및 체이스 맨하탄 은행의 부회장 이였으며, 뱅크 원의 수석컨설턴트였으며 벨링 박사의 관심 연구영역은 미국의 신용 분석틀을 한국 은행에 적용하는 것이며, 하버드대학의 경제학 박사 출신이다.